

문 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정재영과 전도연이라는 한국 영화의 대표 남녀 배우가 주연한 영화 '카운트다운'은 전형적인 한국형 액션영화다. 태건호(정재영)는 5년 전 장애인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헤리싱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채권추심원으로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레 관심을 받는다.

10일 내에 간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심장을 기증받은 미모의 사기전과자 차하연(전도연)에게 간 이식수술을 받기로 하고 그녀와 거래를 한다.

영화는 열혈 평면적인 액션물로 보이지만, 피아노를 치던 장애인 아들의 죽음에 관한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로 태건호의 모습은 영화의 요소 요소에 등장하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막까지 10여분에 가까운 아주 긴 시간 동안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감정의 사선으로 몰고간다.

쇼팽은 모두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2번 협주곡이 먼저 작곡되었으며, 소개하는 1번 협주곡이 더 후일 작곡되었다. 작품번호가 뒤바뀐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쇼팽 자신은 1번 협주곡을 훨씬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도 더 자주 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주곡에 역사적인 명연들이 많지만 가장 우선 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녹음은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직접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녹음한 도이치 그라마폰 음반이다.

영화 '카운트다운' 中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악장'

마지막 순간, 삶은 아름다워 진다

러티브를 끌고가는 큰 축으로 활용된다. 태건호의 아들은 지체아로 태어났지만,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아이다. 영화의 전반부에는 쇼팽의 에듀드와 녹턴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의 절정은 태건호가 기억을 되풀이해 아들이 죽은 순간을 기억하는 병원 시퀀스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사경을 헤매던 순간,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을 떠올려내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휩싸인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죽어가며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대담을 하는 그의 모습은 처연하지만 아름다운 진짜 아빠의 모습이다.

이 안타까운 마지막 순간을 뒤덮으며 구슬프게 울리던 그 음악, 바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악장'이다. 쇼팽의 협주곡 2악장은 영화의 마지

침머만은 가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와 협연하여 이미 녹음을 내놓은바 있지만, 연주의 완성도와 깊이는 후자가 훨씬 앞선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 흐린 폴란드 거리를 거니는 것처럼 아주 진한 페이소스가 담겨있는 짐머만의 연주는 애수의 그림자를 더욱 부각시키고 다른 연주와는 확연히 다른 액센트의 활용 덕분에 쇼팽의 음표들이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느낌이다.

영화 속 태건호의 죽음 위에 아름답게 흐르던 쇼팽의 선율, 어쩌면 아들의 영혼과 조우하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선율이 아니었을까? 힘겹게 달려왔던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한 평생 아름다웠노라고 추억해 할 수 있는 절정의 멜로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모상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대형 뮤지컬에 클래식 연주회까지 올해도 감동은 계속된다

2월 '캣츠', 3월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영어 버전

'셜록홀즈' '엘리자벳' '맘마미아' 등도 공연 예정

2012년 광주에서는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

지난해 '나는 가수다' 등 경연 프로그램의 후광으로 뮤지컬 대신, 가수들의 공연이 유난히 많았던 데 비해 올해는 대형 뮤지컬들이 잇따라 대기중이다.

포문은 뮤지컬 '캣츠'가 연다. 지난해 공연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던 한국판 '캣츠'는 오는 2월 3일~5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토니상 7개 부문 수상작으로 '메모리' 등 앤드루 웨버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캣츠'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70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명품 뮤지컬이다. 이번 한국어판 여주인공 그리자벨라 역으로는 인순이·박해미·홍지민이 트리플캐스팅됐다.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이번엔 영어버전으로 오는 3월8일~11일 광주문화회관에서 공연된다. 지난 2006년 프랑스어 버전 초연후, 수차례 한국어 버전으로 공연됐던 '노트르담 드 파리'는 대사 없이 노래

로만 이루어진 뮤지컬이다.

뮤지컬팬들이 학수고대해온 오리지널 팀 공연으로 2006년 내한했던 파지모도역의 맷로랑과 프톨로 신부 역의 로베르 마리앵이 이번 무대에도 선다.

지난해 열린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한 창작 뮤지컬 '셜록홀즈'는 5월에 광주팬들을 만난다.

최우수작품상과 작곡상·극본상을 수상한 '셜록홀즈'는 다양한 무대 전환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극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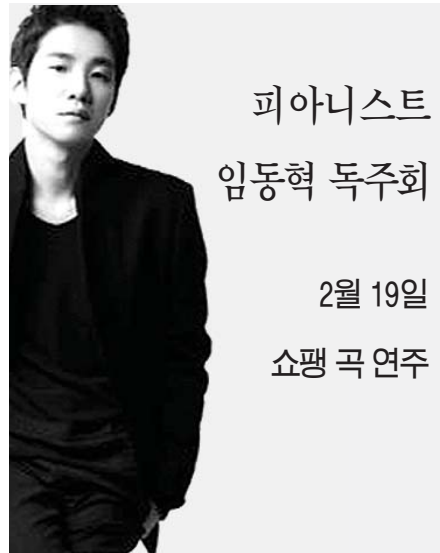
뮤지컬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내 초연작 '엘리자벳'도 7월 공연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장기 공연한 후 지방 투어에 나서는 '엘리자벳'에는 시아준

수·류정환·송창의·옥주현·김수현 등이 뮤지컬계 스타들이 캐스팅됐다.

아바의 노래로 만든 '맘마미아' 역시 올해도 광주를 찾는다. 최정원·전수경·이경미 '맘마미아'의 대표배우들이 다시 한번 공연장을 들쭉이게 만든다.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클래식 독주회도 예정돼 있다. '피아노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 거듭난 피아니스트 임동혁(29)의 독주회도 열린다. 오는 2월 12일 대구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10개도시 투어 콘서트의 첫 테이프를 끊는 임씨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선다.

임씨는 통티보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을 시작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



피아니스트

임동혁 독주회

2월 19일

쇼팽 곡 연주

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날려왔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쇼팽곡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한해 승천하는 용처럼...

광주시립미술관, 10~15일 '용 그림'전

"새해에는 용꿈 꾸세요"
광주시립미술관은 용의 해를 맞아 10~15일 '용 그림'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해성·박구환·박도승·박소빈·박수만씨가 참여해 승천하는 용의 기상을 화폭에 담아 선사한다.

박소빈씨는 연필을 이용한 특유의 검은 모노톤으로 풍만하게 표현한 여인과 용의 사랑을 그렸고, 김해성씨는 화려한 색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그려냈다.

또 10~14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참여 작가들이 전시장에서 작품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10여 점 내외의 드로잉을 그려 관객들에게 나눠준다. 문의 062-613-715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수만 작 '내 안의 용'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김영하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36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김영하(44)가 6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세계의문학' 분호에 발표된 단편 '옥수수와 나'.

심사위원회(김윤식 윤후명 서영은 권영민 신경숙)는 "인간의 정신과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서사화함으로써 환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 작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95년 계간 '리뷰'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영하는 그동안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산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만해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받았다.



우수작으로는 김영욱의 '스프레이', 김숨의 '국수', 조해진의 '유리', 조현의 '그 순간 너와 난', 최재훈의 '미루의 초상화', 하성란의 '오후, 가로지르다', 한정림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등 일곱편이 뽑혔다. 상금은 대상 3500만 원, 우수작 각 300만 원이며 수상작집은 이달 20일께 발간된다.

/연합뉴스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 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

1관	원더폴라디오	최고급관
2관	오작한연애	
3관	미션임파서블4	
4관	마이웨이	
5관	라이온킹3D / 미션임파서블4	
6관	다크아워	
7관	퍼펙트게임	
8관	셜록홀즈2	
9관	원더폴라디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상당원연결 방편 - (1번 or 2번) - 0번

☎ 1588-7941

상무점

1관	원더폴라디오
2관	미션임파서블4
3관	마이웨이
4관	라이온킹3D / 다크아워
5관	퍼펙트게임
6관	포켓몬스터 / 셜록홀즈2
7관	원더폴라디오 / 마이웨이
8관	프렌즈 / 다크아워
9관	엘빈과슈퍼밴드3 / 오작한연애
10관	프렌즈 / 미션임파서블4

매일매일 조조엔 선착순30명 팔권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짜커피 1+1 행사★
평일 오후3시부터 쿠폰이벤트 할인 - 이벤트무로 - 영화무로 !!
호남최대주차장 / www.megabox.co.kr

하남점

1관	다크아워3D / 미션임파서블4
2관	라이온킹3D / 오작한연애
3관	미션임파서블4
4관	미션임파서블4
5관	프렌즈 / 포켓몬스터 / 다크아워
6관	퍼펙트게임
7관	원더폴라디오
8관	원더폴라디오 / 엘빈과슈퍼밴드3
9관	셜록홀즈2
10관	마이웨이

(상무점) 리뷰엔 오픈기념! 매일매일 팔권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짜커피 1+1 행사★
평일 오후3시부터 쿠폰이벤트 할인 - 이벤트무로 - 영화무로 !!
www.megabox.co.kr